

야구 꿈나무들 순창서 모였다

강천산배 유소년 대회 개최
휘문아카데미 등 우승 차지
코로나19 재확산 지속 따라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

유소년 야구의 고장 순창군에서 '제6회 순창 강천산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열렸다. 이번 대회는 대한유소년야구연맹(회장 이상근)이 주최·주관하고 전북도와 순창군이 후원하여 팔덕다용도경기장, 공설운동장 등 8개 구장에서 펼쳐졌으며 전국에서 118개팀 3,000명이 순창군을 방문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순창군에서 개최된 단일 스포츠대회로는 최대 참가인원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다.

경기는 초반 4일간의 토너먼트로 진행되고, 마지막 2일간의 본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새싹리그, 꿈나무리그(청룡, 백호, 현무), 유소년리그(청룡, 백호), 주니어리그 등 7개부로 나누어 경기가 치러졌다.

이번 대회 우승팀은 △새싹리그 휘문아카데미(감독 박영주), △꿈나무리그(청룡) 아나시 유소년야구단(감독 황민호), △꿈나무리그(백호) 전안시 유소년야구단(감독 황민호), △꿈나무리그(현무) 송파구 유소년야구단(감독 윤규진), △유소년리그(청룡) 남양주야놀 유소년야구단(감독 권오현), △유소년리그(백호) 전주시원산구 유소년야구단(감독 박진호) △주니어

어리그 전주시원산구 주니어야구단(감독 박진호)이 각각 트로피를 안았다.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한유소년야구연맹에서는 선수들에게 대회 참가 전 코로나 자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순창군 스포츠방역단에서는 발열체크 등 건강모니터링 부스를 운영하며 방역 방역차를 이용하여 경기장별로 철저히 소독했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만큼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해 팔덕다용도 경기장에 관라텐트와 그늘막을 설치하고 쿨링포그 터널을 시범 설치하여 어린 선수들은 물론 가족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순창군 스포츠마케팅팀 직원들이 대회 기간 휴일도 없이 코로나 및 열사병 발생 대비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별로 상주하는 등 안전한 대회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없이 무사히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대회 기간 지역 내 숙박업소들은 만반이었고, 음식점들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등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17일 유소년야구연맹 인터넷방송 공식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유소년 야구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가 그 어느 스포츠대회보다 크기에 유소년 야구 유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10월에 개최되는 2022 순창 고추장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서도 유소년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경기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유소년 야구의 고장 순창군에서 제6회 순창강천산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열렸다.

이번 주말, 남원서 검도·킥복싱 대회 개최

춘향골체육관·사랑의광장 특설링서

남원에서 19일~21일 사흘간 검도와 킥복싱 종목의 전국대회가 열린다. 시는 '제9회 국무총리기 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항 검도대회'와 '남원시장기 제15회 코리아인비스트 킥복싱대회'가 이번 주말 춘향골체육관과 사랑의광장 특설링에서 잇따라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

열리는 '제9회 국무총리기 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항 검도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000여명의 선수단 등이 남원을 찾아 검도인의 축제를 함께 즐긴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검도를 가까이서 관람하며 예를 중시하는 검도의 절도 있는 동작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신선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9일과 20일에는 춘향테마파크 내 사랑의광장에 설치된 특설링에서는 '남원시장

기 제15회 코리아인비스트 킥복싱대회'가 열려 선수들과 가족 등 1000여명이 남원을 찾게 된다. 아마추어와 신인전, 타이틀매치로 진행되는 대회에서는 20일 오후 7시에 유명 최강자들이 출전하는 메인경기가 펼쳐진다. 최경식 시장은 "주말 동안 열리는 전국대회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도 20차례 이상의 도 단위 이상급의 체육대회가 계획돼 있는 만큼 대회를 위해 남원을 찾는 손님들을 시민 여러분께서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18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제1차 전북체육회 체육인 인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위원장인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체육인 인권보호 자문 심의

전북체육회, 제1차 체육인 인권위원회 열어
13명 구성... 위원장에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18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제1차 체육인 인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 수립, 인권보호 강화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 도내 체육인들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사항을 자문 심의한다.

구성인 인권전문가와 법률가, 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 관계자, 선수 출신 등 전문지식이 있는 13명으로, 위원장에는 국회의원 출신인 장영달 우석대 학교 명예

총장이 맡게 됐다.

장영달 위원장은 "차별금지 마중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인식 개선을 통해 깨끗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강선 회장은 "폭행 등 스포츠 4대악을 비롯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인권친화적인 체육환경을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해 달라" 당부했다.

/장은성기자

전북체육회 체육영재선발대회 650여명 참가

내달 7일까지 임실군 일원서 개최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9월 7일까지 임실군 일원에서 제2회 체육영재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운동부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운동에 재능이 있는 숨은 체육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2회째다.

참가자 접수결과 도내 14개 시군에서 약 650여 명의 초등학생(3~6년)과 중학생(1년)이 신청했다.

/장은성기자

예선은 기초체력과 운동체력 등을 측정하며, 본선 진출자 100명을 선별한다. 이후 본선을 통과한 40명의 학생들은 최종 결선에 진출,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치게 된다. 결선진출자 전원에게는 체육장학금(5만원)이 지급되며, 이 가운데 우수자와 준우수 그리고 3위 입상자에게는 추가 장학금이 주어진다.

또한 대회 참가자 중 전문체육 선수 활동을 할 경우 훈련비와 훈련용품 등도 지원된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하세요.

문화공간이름 기획프로그램 2022 전북문화관광재단 소극장 지원사업

이름오픈데이 우리들의 베크리스트

8월	9월	10월
17. 이따구 콘서트 (수)	14. 우리는 작가다 (수)	04. 판소리반 콘서트 (화)
18. 뒤끝작별 콘서트 (목)	15. 피아노듀오콘서트 (목)	05. 따뜻한 동행 (수)
19. 남의 떡 콘서트 (금)	16. 강경희 도예전 (금)	06. 이나현피아노독주회 (목)
21. 음치 (일)	17. 하얀 (토)	07. Two & Two (금)
	18. Rainbow Music (일)	20. 테너 강경찬 -passione (목)
		21. 유길문 콘서트 (금)

평일 7:30 pm 주말 5:00 pm

문화공간이름 ART SPACE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36, 서도프라자 10층 1006호

주최·주관 | 문화공간이름 후원 | 전북문화관광재단 문의 | 063-223-5323

본 공연은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2년 소극장(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